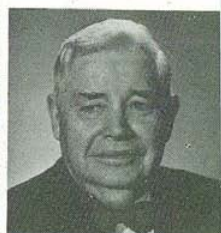


# 성도의 빛 1980





# 성도의 벗 9

1980

## 차 례

###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 교회

#####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 십이사도 평의회

예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름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 교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렉스 디 피네가

휴 더블류 피녹크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진의 1권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400원액의 정기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미래는.....	래리 힐러 편집자.....	1
위대한 계명.....	엔 엘론 태너 부대관장.....	2
나의 가장 큰 어려움.....	찰스 더블류 배릿 편수.....	7
질 의 응 답.....		12
물 몬 일 지.....		15
내 머리 위에 그의 손이.....	안나 그레이타 아암.....	17
폭풍의 바다에서 인도됨.....	켈리쿠와 키바루.....	19
내 친구.....		21
친구가 친구에게.....	로버트 엘 백맨 장로.....	23
마이클의 가족.....	베티 루 멜.....	24
심심풀이.....		28
55세에 회개를.....	마이클 브이 리.....	29
우리 둘만은 아니었다.....	악셀 태너.....	33
이들은 정복당하지않을 사람들이다.....	본 제이 페더스트운 장로.....	41
지역 지도자 메시지.....	디 브렌트 클레멘트 서울 선교부장.....	44
지역 소식.....		47
해외 소식.....		48

동 권 : 제182호, 제18권 제9호

동 목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0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 진 피 딜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중로구 청문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514091

인쇄인 : 삼희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53AKO PRINTED IN SEOUL, KOREA 9/80

© 1980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International magazine



#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미래는?

어느덧 우리는 백 오십 년의 교회 역사를 뒤로 하게 되었다. 이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왕국을 지금의 상태로 발전시키는데 공헌한 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최근의 연차 대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에 관하여 언급하셨다. 여러모로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다. 시험과 고난도 있을 것이고 영광스러운 업적도 쌓을 것이다. 그러한 희생과 업적을 위하여 누가 부름을 받을 것인가? 바로 우리들이다.

교회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면 교회의 초기 성도들이 보여 준 결의와 힘에 경탄을 표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었기에 망정이지 우리가 아니길 다행이야. 오늘날 우리들이 감당해 낼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생각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옛날의 말일성도들도 나나 여러분처럼 감정과 인간의 나약함과 유혹에 영향을 받는 똑같은 사람들인 것이다. 저들이 진리에 대하여 지녔던 간증이 같은 시대를 살던 평범한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이 되게 한 것이다. 저들은 성신의 증거를 받았으며 기름부음을 받은 지도자의 부름과 권고에 좇았을 때 성신이 더욱 저들을 강하게 해주었고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것이다. 박해와 슬픔이 닥칠 때는 보혜사가 함께 하셨다. 결코 홀로가 아니었다. 주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예비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미래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왕국을 건설하라는 부름에 임할진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강하고 굳건히 견디려면 초기의 성도들이 지녔던 것과 같은 간증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회원이 저마다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태어나 자라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별적으로 간증을 얻어야 한다. 개별적인 증거를 한번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간증은 계속적인 기도와 탐구와 의로운 생활로 살찌워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야 우리는 앞서 가신 분들처럼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총판리 역원이나 그 밖에 다른 교회 지도자들을 신앙과 헌신의 본보기로 삼는다. 그러나 그분들의 부름의 중요성에 비견할 때 그 수가 적다. 일반 성도들에게도 위대한 힘과 신앙이 내재하는 것이다. 헌신적이고 신앙심이 깊은 많은 말일성도들이 소속 지부나 와드 밖으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 성도의 빛에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평범한” 말일성도의 간증과 체험을 실기로 했다. 이들과 또 이들과 같은 수백만의 성도들이 왕국의 왕이 임하실 때까지 이미 놓여진 굳건한 기초 위에 왕국 건설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우리의 노력을 증대시켜 주며 특히 시련의 때에 우리에게 위안을 가져다 주는 간증을 키워 간직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 래리 힐러 편집자 —

# 위대한 계명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인**류가 온갖 시련과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우리의 불안의 원인을 생각해 보고, 건전한 이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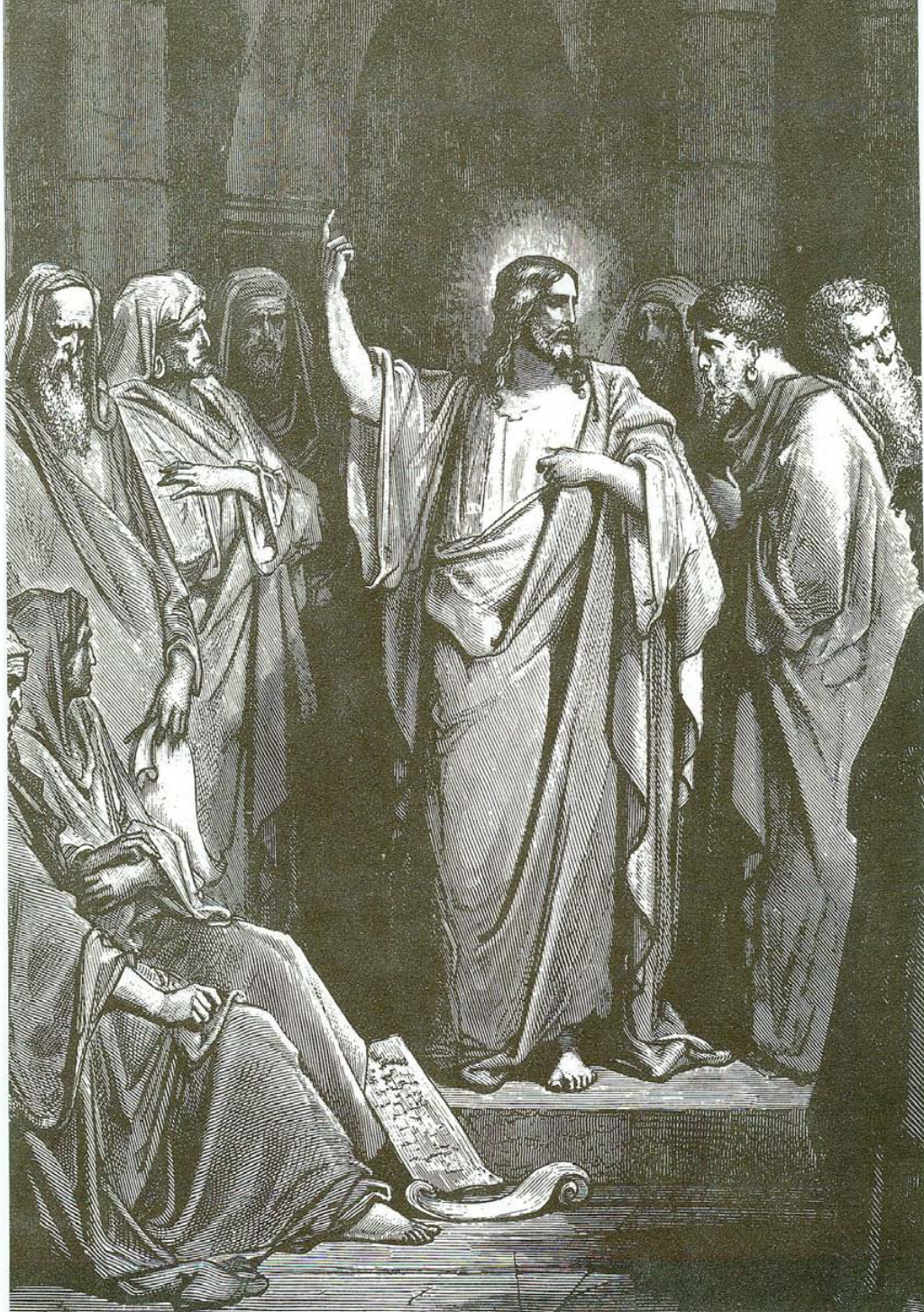
우리가 화평과 형제애를 지으신 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모든 잘못을 바로잡으며, 전쟁의 총성을 잠잠케 하며,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

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우리의 겸손쟁기로 만들고, 행복하게 생활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날에 더욱 합당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라고 물은 율법사에게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자의 강력이니라”(마태복음 22 : 37-40)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그토록 더딤니까?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자로서 받아들이고 그가 인간의 만사를 주관하시는 율법에 따라 우리가 생활할 때에 비로소 모든 세상의 문제가 공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십계라는 영화의 예고편에서 나는 인상깊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거나 독재자의 통치를 받거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 율법에 순종할 때에만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범법을 속박이나 사망을 초래하며 적어도 자유의 제한을 가져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보이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레위기 19 : 16-18)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명기 6 : 5-7)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 : 35)

요한은 그의 백성들에게 권고할 때 이렇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느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요한일서 4 : 20-21)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오직 형제애로써 대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강화시켜야 하며 결코 약화시켜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과 이웃의 의사를 존중하고 높여 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육신의 독생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을 품거나 증오심을 느낀다거나 형제애를 소홀히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문교를 믿듯이 누구는 천주교를 믿고 또 누구누구는 신교 혹은 유대교를 신봉하며, 이럴 경우 서로를 비방하

거나 상대방에게 나쁜 감정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특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5:12)는 가르침을 받아들여 생활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보다 훌륭한 개인으로 훌륭한 시민으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 즉 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신 이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존경과 관용을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스스로의 확신과 교리를 충실하게 지키면서,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저들과 함께 생활하며 함께 놀도록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화평과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나갈 때 그들이 곧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외국의 습관에 적응하여, 그들이 봉사할 나라의 국민에 대한 깊은 사랑을 배워 귀환하는 모습을 볼 때 깊은 흥미를 느끼고 영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며, 어느 곳에서 봉사하든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은 우리 모두를 내어 주는 일, 즉 이기심을 던져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겠다는 목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얻거나 갖는다 해도 참다운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반수 이상이 그릇된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데서 얻어지는 것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소유하고 쟁취하며 섬김을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주 스스로의 결점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과장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위대한 성품의 소유자는 결코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거나 그들의 결점을 찾아 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이웃의 성공과 복지에 대해 사랑과 관심을 보이는 성품인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악의를 품고 나쁜 감정을 갖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비난의 말을 해서는 안되며 서로를 격려하고 강하게 해주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한 친구가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부친과 부친의 사촌이 같은 지역에 살면서 서로 건축업계에서 경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건물의 건축 청부에서 비롯된 심각한 경쟁 의식은 해가 거듭될수록 커졌으며, 결국에는 그 친구의 부친이 세상을 떠난 후까지도 그같은 경쟁 의식은 때를 물려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부름에 있어서도 서로 정답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떤 와드의 감독이 되었고 그의 육촌 형도 다른 와드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사태는 점점 악화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나의 친구는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

죽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치 못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같은 중요한 부름을 받기에 합당한지를 끊임없이 자문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혜의 말씀을 잘 지켰으며, 십일조를 완전히 바치며, 교회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치 못한 느낌은 계속되었습니다.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어느 날 오후, 그가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어떤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육촌 형을 찾아가 그동안의 서먹한 관계를 풀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정을 지닌 채로는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려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육촌 형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두려운 마음으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그가 시도하려고는 했으며 또 시도했다는 것으로 그 문제를 끝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튿날은 장례식이 있었는데 마침 그의 육촌 형도 참석하여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육촌 형에게 장례식이 끝난 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청하였습니다. 나의 친구의 설명을 옮겨 놓겠습니다.

“내가 초인종을 누르자 그는 나를 거실 안으로 맞이하고는 나의 선교부장의 부름을 축하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것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런 다음에 그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씩씩한 감정을 벗어 버리고 사랑의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우리

와 가족의 사이를 갈라 놓게 했다면 모두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고 잠시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때야말로 침묵이 말보다 강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야 했는데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했느냐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 사이를 떼어 놓게 했던 것을 우리의 생활과 영혼에서 깨끗이 씻어 버리게 된 영적인 경험을 훌쩍하게 맛보았습니다. 그일로 해서 우리는 원만한 가족 관계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일생 처음으로 가장 깊은 차원에서 사랑의 참 의미를 경험했기 때문에 선교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는 내가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나의 생활은 다시는 전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요 13:34)고 하신 계율을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으나, 그제서야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이 짧은 길든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 길을 지날 수 없을 것이므로 할 수 있는 동안 모든 언행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표해야 하겠습니다. \*



몇몇 회원이 그들이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도왔는가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려준다.

# 나의 가장 큰 어려움

찰스 더블류 배릿 편수

갈등.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일생 동안에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 회원들에게 있어서 는 그것이 신앙과 이성간의 또는 기대와 실제 사이의 또는 사람들이 고려해야 하는 많은 관심사와 쟁점 사이의 투쟁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처하도록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나? 여기에 몇 명의 교회 회원의 반응을 실는다.

대럴 로우즈,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의 메이  
요우 의료원 청력 연구가

나의 가장 큰 갈등은 내가 알고 있  
는 것과 현재의 현실 사이의 차이  
에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내가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는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 이 주제에 관하여 토론을 하  
게 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상당히  
노력해 온 편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  
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교회 영화를 보  
여 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을 즐겁  
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교회에 관하여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년 충분히  
했어. 이제 염려하지마. 선교 사업에

대하여 토론할 때마다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어.”라고 말하며 위안을 얻기  
에 충분할 만큼 일하지는 않았읍니다.

때때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입을 때는 간단  
하게 보이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나는 과자를 꺼내다가 귀여운  
고양이를 밟기도 하고, 내 아들은 이웃  
집 창문으로 공을 던져 우리를 깨뜨리  
기도 하며 이웃에게 빌린 망치와 지렛  
대를 즉시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읍  
니다. 이웃에게 내가 준비한 말씀을 들  
으러 교회로 오라고 권유하여 그들을 와  
드에 참여시키면 와드에서 가장 시끄러  
운 가족 옆에 앉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임이 끝나고 내 말은 잘 들을 수 없  
었지만 물문은 우호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네 교회가 더 경건  
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던 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다행히 나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내적인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임을 압니다. 또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도 확실히 압니다. 내가 노력하고 있으며 이 생을 살면서 그런 투쟁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걱정은 가라앉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야 할 일을 행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

**앨릭스 비 모리슨** 캐나다 오타와의 보건 및 복지성 차관

**나**의 가장 큰 갈등은 시간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생깁니다. 직책에 대한 책임은 너무나 엄격한 것이어서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내려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위에 교회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해야 합니다.

나는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균형을 취하지 못했다면 훨씬 더 많은 실패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많은 시간을 요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을 꼬박 거기에 써야 할 지경입니다.

복음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주로 사물을 옳바로 보게 함으로써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고 전하신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나는 한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나는 김볼 대관장님께서 부모와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합당한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30분씩 경전을 읽고 명상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하루의 생활에서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가를 더욱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기도는 내가 가족과 가족의 마음에 가깝게 되는 데 큰 몫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가족 기도는 우리 모두를 도왔으며 내가 집을 자주 비우는 상황에서는 더욱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근심이 있는 때에도 가족 기도는 가족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 줍니다.

가정의 밤도 같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나의 모두를 가족에게 집중하도록 해줍니다. 가족과 자리를 함께 함으로써 심신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느끼는 사랑이 매우 강렬하므로 더욱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로 하여금 일주일 내내 그들에 대하여 생각하게 해줍니다. 나는 내 생애에서 이런 활동을 가질 수 있는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나의 생애에 주 관심사나 그것에 대하여 기울이는 나의 노력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

**팸 파슨즈** 사우드 캐롤라이나, 콜롬비아, 사우드 캐롤라이나 대학교 여자 체육 책임



**어**린 소녀였을 때 나는 경쟁심이 많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가 남자였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자가 된 것에 대하여 매우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룻밤만에 된 일이 아닙니다.

바로 몇 년 전에 어떤 사회적인 여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코우치로 일하고 있었으며 승리와 성공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행히도 몇 가지 복음 원리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이 깨었을 때 나는 문득 자신이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득 나는 복음 원리가 지극히 완전하므로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선 순위와 매일매일의 습성을 바꾸었으며 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복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성 해방 운동가에서 여성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며, 오직 주님의 계획의 지혜 안에서만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성의 체육과 여성 문제에 더 훌륭하게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영원한 결혼의 개념과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하게 되자 다시 갈등이 생겼습니다. 나는 대학을 마칠 때까지 결혼을 못하므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배척당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신을 확대하고 그것에 대

하여 염려했으나 그런 것은 나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았습나다.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나 자신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좀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결심했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가능한 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의 호감을 살 수 있다면 좋고, 그렇게 안된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자신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고 무언가 공헌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 훌륭한 습관을 갖도록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체중도 상당히 줄였고 다른 많은 분야에서 진전을 보았습니다.

내가 불행한 것을 외적인 요소의 책임으로 탓해 왔으나 이 복음은 내가 스스로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나 자신에게 돌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기로 결심했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제는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나는 그때로부터 이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가 집안에 질서를 세우면 우리 앞에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샬 데프랑시** 귀환 선교사이며 대학생, 프랑스 보르도 출신

**유**림에서 자라는 동안 나는 성적으로 "자유 분방"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나는 십대 소년으로서 그런 세계로 강력하게 이끌렸으며, 그것

에 대한 극심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나의 신앙과 사회상 또한 나의 신앙과 인기에 영합하는 일반 세상 사이에는 커다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 나를 도와 준 것은, 교회와 사회간의 상반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구세주께서는 참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나는 이 간증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나를 교회에 밀착시켜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진리가 있음을 단지 직관에 의해서 알기도 했읍니는만 교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커다란 유혹에도 불구하고 더욱 교회에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과 활동과 지도자와의 접견은 내가 배운 것을 행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나는 그 기간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또 다른 고난의 기간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러나 나는 이 경험을 통하여 고난의 시기가 닥치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

**미세이더스 보우니아** 어머니이며 가정주부이고 코스타리카의 상호세에 살며 주미코스타리카 영사임.

**지**금 그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건대 오늘날 내 생활에는 커다란 갈등은 전혀 없습니다. 큰 갈등도 복음의 빛에 밀려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복음에 따라 생활하면 할수록 내 생활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겪는 갈등은 극히 작은 것으로서 아이들과 내가 모두 피로할 때 인내심이 많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시간을 내는 등 훌륭한 주부가 되려고 노력할 때 일상 생활에 나타나는 그러한 종류의 갈등입니다.

교회 프로그램, 특히 그중에서도 상호부조회와 주일학교의 공과가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좀더 훌륭한 어머니와 아내가 되며, 좀더 인내심이 많고 사랑스럽게 되며, 좀더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교회 공과는 나의 어린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르치려고 한 것을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가르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항상 나 혼자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

**앨런 베어드** 텍사스 포우트워어드 연방 교도국 행정 관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가장 큰 갈등은 내가 하는 일에서 느끼는 좌절감입니다. 이 복음이 참될 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견디도록 도움을 주는 것임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게 하고 거기에서 유익을 얻게 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좌절감입니다.

이 세대의 철학에 기만당한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를 다룰 때 특히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 중에는 좀더 나은 것과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찾고 있는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한 교회나 가정 생활에서 그러한 것을 찾지 못하면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약물에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나 곧 거기에서 아무 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진지하게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 방법을 모릅니다.

복음은 나에게 우리가 휴가를 즐기기 위하여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나는 다른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복음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해도 낙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는 아직 이와 같은 성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은 나에게 필요한 인내력을 가르쳐 주고 사람들을 도우려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도와 줍니다. 또한 그들의 내부에도 신성한 어떤 것이 있으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도록 도와 줍니다.

어떤 때는 그들이 생활에 질서를 세울 때까지 몇 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물몬이 경험하는 기도와 또한 복음에 거하는 깊은 신앙은 나를 지지해 주며 나에게 필요한 화평을 주며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도록 해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언제 갑자기 구세주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열렬히 복음대로 생활할지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

제로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났습니다. \*

다프나 브라프만 이스라엘 텔아비브 출생. 대학생

**교** 회에 대한 믿음과 개종으로 인하여 나와 우리 가족 사이에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나를 받아들이지만 나의 믿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 알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인이 되고 그 위에 물몬이 되는 것은 실제로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나는 아직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해답과 도움을 복음과 주님의 영을 통하여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내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이것은 내가 그들을 이해시키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인내심과 사랑을 주었습니다.

나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내가 인생에서 해야 할 것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때 나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특권을 갖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위안을 얻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보도 고문이며 자유 기고가인 찰스 더블류 배릿은 비 와이 유 제 9스레이크의 공보 위원장이다. 이 자료는 앞으로 발간될 예정인 그의 저서, "오늘날의 물몬—사실과 사고"에서 발췌한 것이다. \*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 에이치 딘 개럿

템프, 애리조나, 신학 연구원



구약성서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고 신약성서에는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성서에서 받은 인상과 신약성서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품성은 조화를 이루기가 무척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상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다음 성구를 인용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신명기 7:6)

이 성구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백성에 속하여 그 사명을 떠맡게 될 자들과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 형태와 강한 정도에 있어서 성약에 속하지 않은 다른 자녀들과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머지 자녀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며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길을 알게 되는 것도 오직 그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구약성서에서 나타난 사건들, 즉 롯의 아내가 소똥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린 일(창 19장 참조)이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간과 그의 가족과 재산이 몰락된 사건(수 7장 참조)을 조사해 보면 성약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점이 있는 선택된 무리와 함께 계셔서 그들이 성약의 책임을 지닌 성약의 백성이 되도록 정결케 하려고 애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그분이 취하신 몇 가지 행동은 엄하게 보이지만 영원한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주님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만일 형제나 아들이나 아내나 기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잘못 인도하면 “그를 죽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잃게 되며 자신을 타락시키며 결국은 후손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소수의 몇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더 나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와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이 멸망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살아서 후손에게 큰 불행을 초래하고 태어나지 않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보다 죽음을 당하여 잘못 사용한 자유의지를 박탈당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솔트레이크시티 : 시온 출판사, 1971년], 53페이지)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영적인 수준에서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서는 엄하고 무섭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의롭고 모세가 처음에 산에서 내려와서 준 보다 높은 율법을 받아들였다면 구약성서는 좀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주님의 영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수준에서 보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물론경을 보면 구약 시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대부분이 신약과 같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보다 조화된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분은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단호하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선량한 구도자와 신자들에게는 관대했으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외식하는 자라고 비난했으며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을 몰아내셨습니다. 물론경에서 그분은 레이먼과 페뤼엘과 그 후손도 니파이와 셈처럼 성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예언자들이 수세기를 통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니파이인들의 최후의 멸망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비극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비해 그 범위는 더

넓고 거기에 포함된 원리는 더 높은 수준의 것이었으나 회개하지 않는 한 불순종에 대한 벌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신약과 몰몬경에서만 끝없는 용서에 관한 기록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인내에 관한 가르침은 구약성서 전체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가르친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그는 불충실한 아내를 완고한 이스라엘에, 자신의 인내를 주님의 오래 참음에 비유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에도 부정당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인내와 친절과 사랑으로 아내를 대했습니다. 그래도 고멜은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다른 연애하는 자들과 음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친절과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서는 호세아와 이스라엘의 유사점을 들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절음을 가

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명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호세아 11: 1-4)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의 모세의 기록에서 인용한 것이며, “물째는 그와 같으니”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처음에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가혹하지 않았으며 또한 몰몬경과 신약성서의 하나님도 끝없이 인내심을 발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니파이일서 10장 1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으”시다고 선포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10장 34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악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하거나,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을 악마의 것이라 판단하지 않도록”(모로 7: 14)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



## 중국인의 진리의 메아리

판 쿠앙 아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대부분의 중국 젊은이처럼 나도 스스로를 과학자로 자칭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았고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다. 나는 종종 “바이 바이”(중국인 가족의 전통적 제사)에 초대되었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의 경우 거기 모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고 의식의 일부로서 신에게 바치지만 참여자들이 먹게 되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즐거웠다.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었

다. “바이 바이”의 제주와 손님들도 그 날 그들이 제사드리는 신이 어느 신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우리 가족은 단지 중국 축제일 동안에만 조상을 경배했다. 가정에 강력한 종교적 전통이 부족했지만 그 대신에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질적인” 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조상에게 불효가 된다고 생각했다. 더우기 나는 많은 중국 사람들과 같이 기독교 선교사를 싫어했다. 그것은 과거 200년 동안 그들의 나라가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 동포들에게 아편을 팔고 인도와 이집트와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중국도 거의 멸망시키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말일성도로서 동창생인 영 호친이라는 친구가 이웃에 사는 두 자매 선교사를 방문하러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중에 한 사람은 캐나다에서 왔다고 했다. 나는 캐나다 사람을 본 일이 없었으므로 이 선교사를 보려고 함께 갔다. 그 선교사 중 한 사람은 카드스턴에서 온 모이교 블랙모어 자매이며 또 한 사람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온 줄리아 스미스 자매라고 소개하고는 캐나다에서 온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 볼 사이도 없이 곧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 세번째 토론까지는 그들이 사용하는 교회 용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으나 그 자매들이 대답하기에는 어려운 것이었다. 이러한 가르침은 내가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인 지식과는 모순되는 점이 많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열성에 감동하였고 무례하게 행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계속해서 회복된 복음을 공부했다. 이윽고 나는 전에 공부했던 어느 것보다도 여기에 더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나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권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전환기가 될 것임을 았았다. 나는 복음이 참된 것을 알았으나 하나님에 관한 전통적인 중국인의 사상이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버리거나 새로운 진리에 적응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상한 힘이 나를 결박하여 나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는 기도를 그만두면 그 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나는 열두 번이나 시도한 후에야 겨우 기도할 수 있었다. 나는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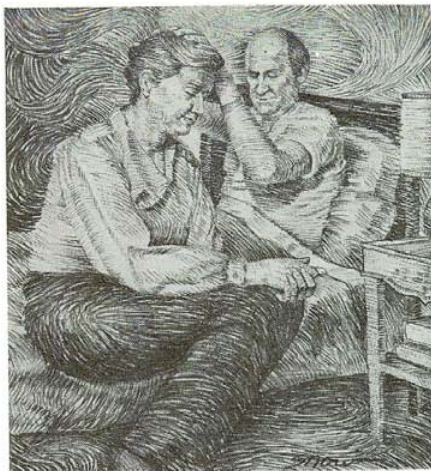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는 새벽 2시 30분이었으나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의심도 없었다. 나는 침례받기로 결심했고 그후 침례를 받았다. 나의 신앙은 하루에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때때로 나의 뇌리 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스쳐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면 할수록 나의 믿음은 더 커졌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보 사업을 행하라고 명하셨다. 그런데 중국 민족은 족보를 지니고 있는 민족이다. 우리 가족의 기록은 기원전 1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또한 중국의 전설과 기독교의 가르침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중국의 전설에는 반고시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하늘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그의 육신이 변하여 이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이 전설은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명과 유사하다. 그 이외에 다른 예도 많다. 한자로 방주는 배에 탄 여덟 사람을 의미한다. 노아의 방주에는 여덟 사람이 타고 있었다. (벧전 3:20 참조) 우리는 악귀를 몰아내고 행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문설주에 붉은 종이를 붙이는 풍속이 있었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천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피를 발랐던

것과 흡사하다. (출 12:13 참조) 고대 중국 기록에 의하면 왕과 왕후는 약 800세까지 살았다고 한다. 그것은 창세기에 최초의 족장들의 수명이 매우 길었다고 나타나 있는 것과 흡사하며 중국 사람들은 3의 배수로서 하늘과 지옥을 나타내었으며 각각 다른 영광과 형벌을 나타내었다. 교회에서는 세 가지 등급의 영광을 가르친다. 중국 역사상 폭군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 백성을 구하고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중국 사람들은 서로 반대되는 것의 정의와 그 필요성을 알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알았을 때, 중국 백성들이 한때 진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대부터 중국 사람들은 막연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에 대하여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러한 가르침을 지켜 왔다. 나는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 조상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니며 내가 "이질적"인 신을 믿는다고 생각지 않는다.

내가 침례받고 수년이 지나자 부모와 친구들은 드디어 나를 말일성도, 즉 술을 마시지도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며, 여자를 탐하지도 않으며 때때로 놀랍게도 음식도 먹지 않는 괴상한 사람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내가 인생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과 화평을 갖고 있다. 나는 계명을 더욱 충실히 지키겠다고 다짐해 본다. (앤드류 쿠앙 아이판은 사업가이며 현재 대만 타이페이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일하고 있다.)\*



## 내 머리 위에 그의 손이

안나 그레이타 마암

**제** 2차 세계 대전이 막 끝났을 때 나는 몹시 기뻐다. 우리는 최근에 결혼했고 얼마 전에 우리의 첫아기가 태어났다. 나는 남편을 몹시 사랑했으며 남편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서 내가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가 1946년 가을에 무서운 변화가 생겼다. 남편이 상기

된 얼굴로 집에 와서는, 무엇보다 더 귀중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참 딱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가 설명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1947년 1월 7일에 남편이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벌어진 것을 알았다. 그 이후로 9개월 동안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나는 몹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내가 나빴으며 남편은 여태까지 진리를 이야기해 왔으며 나도 그의 교회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게 된 것이다. 나는 혼란한 상태에 있었으나 침례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1947년 11월 8일에 남편은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 주었다. 그 날은 내 생애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 날이었다.

우리는 1957년에 아이들과 함께 스위스 신전에서 인봉을 받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훌륭하고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다. 그러다가 남편이 불치의 병에 걸렸으며 매우 어려운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다. 우리는 그가 살기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며칠 동안은 그런 대로 행복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올림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순수한 기쁨을 느끼고 앞으로 탁월 그의 축음이 우리를 영원히 갈라놓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슬픔과 걱정이 나를 엄습한 적도 있었다. 남편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강한 간증을 갖도록 키울 수 있을까?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한번은 내가 이런 일로 걱정하고 있을 때 남편이 “어보, 내가 당신을 축복해 주어도 좋겠오?”라고 묻는 것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쇠약해진 두 손을 내 머리 위에 얹고는 신권의 권세로 나에게 모든 책임을 훌륭하게 수행해 나갈 능력을 축복해 주었다. 그가 죽은 후로부터 이 축복이 언제나 매우 실질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 때때로 나는 어려운 문제에 접하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 “나는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남편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는 다시금 내 머리 위에 그 쇠약하지만 권능에 찬 남편의 두 손을 느끼곤 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언제나 근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

현재 자녀들은 성장하여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새로운 말일성도 세대의 책임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있다. 나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염려를 끼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재결합하게 해줄, 또한 우리가 헤어져 있는 세월을 통하여 우리를 가깝게 유지시켜 준 신권의 사슬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른다. \*

다섯 자녀의 어머니인 안나 그레이타 마얌은 스웨덴의 연차필 와드에서 신학 연구원 중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 폭풍의 바다에서 인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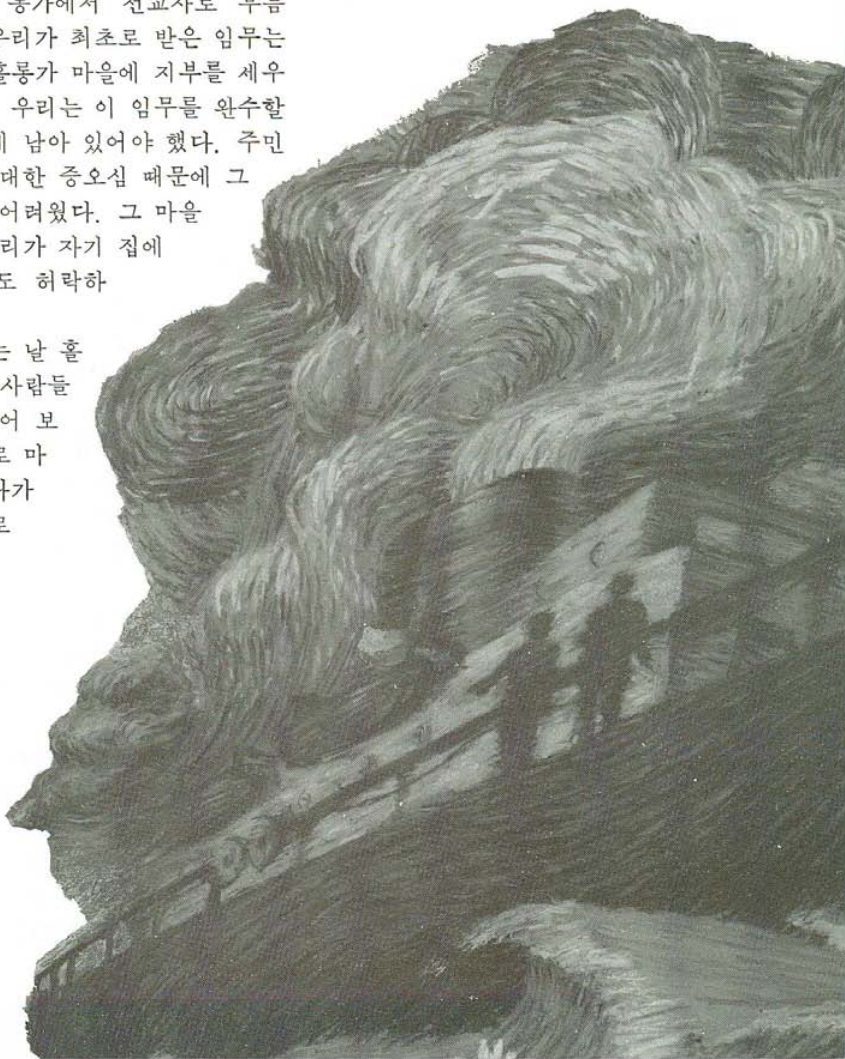
켈리쿠파 키바루

1966년에 나는 아내 마누아케이판가와 함께 통가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최초로 받은 임무는 바바우섬의 훌롱가 마을에 지부를 세우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거기에 남아 있어야 했다. 주민들의 물문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그 임무는 정말 어려웠다. 그 마을의 촌장은 우리가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어느 비오는 날 훌롱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보려는 생각으로 마을을 쏘다니다가 바이오와 엘로네라는 남녀를 만났다. 그들은 마을의 번두리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집으로

맞아들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마을 사람들과 친하게 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선교부장단에서는 2개월만에 지부를 세웠으며 그때 116명이 참석했는데 그중에 46명이 회원이었다. 우리는 존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에 시



오네 마아케 마피 장로와 피리케 나우 장로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우리네 사람은 훈가 섬에 있는 선교사들을 방문하였다. 하루 동안 그들과 함께 일한 후에 누이아파로 돌아오기 위해 작은 통통배를 탔다. 그러나 바다 한 가운데로 왔을 때 물결이 너무 사나와서 항해를 계속할 수 없었다. 우리는 물에 흠뻑 젖어 추웠으므로 선장에게 가까운 섬에 내려 달라고 했다. 그는 우리 말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부두로 가는 대신에 배가 전혀 닿을 수 없는 섬 저편으로 배를 몰고 가는 것이었다.

이 지역은 거친 물결이 계속해서 험준한 벼랑에 심하게 부딪치고 있었으므로 대단히 위험했다. 바다는 몹시 깊었고 섬에 오르기 위해서는 가파른 벼랑을 올라가야만 했다. 그런데 선장은 한 사람씩 뛰어내려 해변에 인접해 있는 낮은 바위를 잡으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내가 수영을 할 수 없으므로 선장에게 제발 부두로 가서 거기에 내려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 대가로 두 배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간청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뛰어내려야 할 장소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증오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았다.

마피 장로는 이 바다에 완전히 익숙해 있었으며 나도 우리가 내리려는 그 섬이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었으므로 걱정되지 않았으나 우리가 걱정한 것은 나의 아내 마누였다. 불행히도 조수는 밀물 때였으며 우리가 도착하려는 바위는 물에 잠겨 있었다. 나우 장로가 먼저 뛰어내렸다. 그리고 배는 한 바퀴 회전한 다음에 내가 뛰어내려 바위를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세번째로 우

리 옷과 물건들이 바다에 던져졌고 네 번째로 아내가 뛰어내렸다. 아내가 뛰어내릴 때 그 자리에만 물이 거의 빠지고 없었기 때문에 바위까지 도착하는 데 성공했다. 다섯번째로 마피 장로가 뛰어내렸고 배는 떠났다.

벼랑을 기어오를 장소를 찾을 때 불쑥 튀어나온 바위턱을 발견했는데 그 가운데 구멍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우리는 나무를 잡고 올라가 그 구멍을 통해서 간신히 꼭대기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구멍은 너무나 좁아서 한 번에 한 사람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또한 그 나무는 너무 가늘고 약해 보였다. 나우 장로가 맨 먼저 시도하여 가까스로 꼭대기에 도착했다. 그 다음으로 내가 올라갔고 아내와 마피 장로는 거기에 남아 있었다. 마누는 몸이 약해서 그 작은 나무에 오를 수 없었다. 그래서 마피 장로가 무릎을 꿇고 마누는 그의 어깨에 올라섰다. 나우와 나는 위에서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하나씩 잡고 구멍을 통해서 가까스로 잡아 올랐다. 우리는 모두 꼭대기에 도착하여 거기에서 5킬로미터 떨어진 가장 가까운 마을로 걸어갔다. 우리는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3킬로미터 떨어진 마타마카 마을까지 걸어갔다. 우리는 몹시 흔들리는 카누를 타고 마침내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나는 그날 우리에게 보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적인 보호에 항상 감사드린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물문을 아주 미워하여 그 폭풍이 치는데 바위 절벽 근처에서 하선시킨 그 선장이 나중에 교회 회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





중국

세계의  
종이인형

스웨덴

멕시코

일본

네덜란드





## 친구가 친구에게

로버트 엘 백맨  
칠십인 제일 정원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열 여덟 명의 손자 손녀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나의 생명의 빛이랍니다. 나는 그들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합니다. 손자 아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즐거운 웃음 소리가 우리 가정을 가득 채울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내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의 마음은 터질 것 같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 어린 손자 손녀들은 신앙과 사랑에 대한 많은 교훈을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어린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같이 말씀하신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 : 3)

2년 전에 딸 아이가 매우 중한 병에 걸려서 여러 주일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우리 온 가족은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손녀 딸 미셀은 가정의 밤에서 고모를 위하여 금식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가족은 동의하였습니다. 다음날 미셀은 조용히 금식하였습니다. 미셀은 학교에 가서도 음식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선생님께 점심 시간에 교실에 그대로 남아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미셀의 어린 남동생 닐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닐은 학교에서 친구가 과자를 먹으라고 주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는 울어버렸습니다. 나는 이 두 아이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금식 간증 모임에서 여섯 살 난 샤로트가 부모와 교회와 킴볼 대관장에 대한 사랑을 간증하였습니다. 더우기 세 살 된 로라가 언니를 이어 간증

하자 로라의 부모도 놀랐습니다. 로라는 간단한 말로 매우 강렬한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언니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을 압니다. 저도 언니들을 사랑합니다.”라고 로라는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학교에 입학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다섯 살 된 타일러는 어른처럼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기도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며 항상 의미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동생 브랜든은 형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를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손자들에게 19세가 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그들은 모두 “선교사로 부름받고 싶어요.”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 선교사 기금을 저축하고 있으며 손녀들은 신전 결혼을 위하여 저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아내와 딸의 가족과 함께 가정의 밤을 가졌습니다. 사위는 칠십인으로서 스테이크 선교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기쁘게도 여덟 살이 되어 침례를 받은 로비가 아빠의 플립차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교사 공과를 가르쳤습니다. 나는 언젠가 그가 선교부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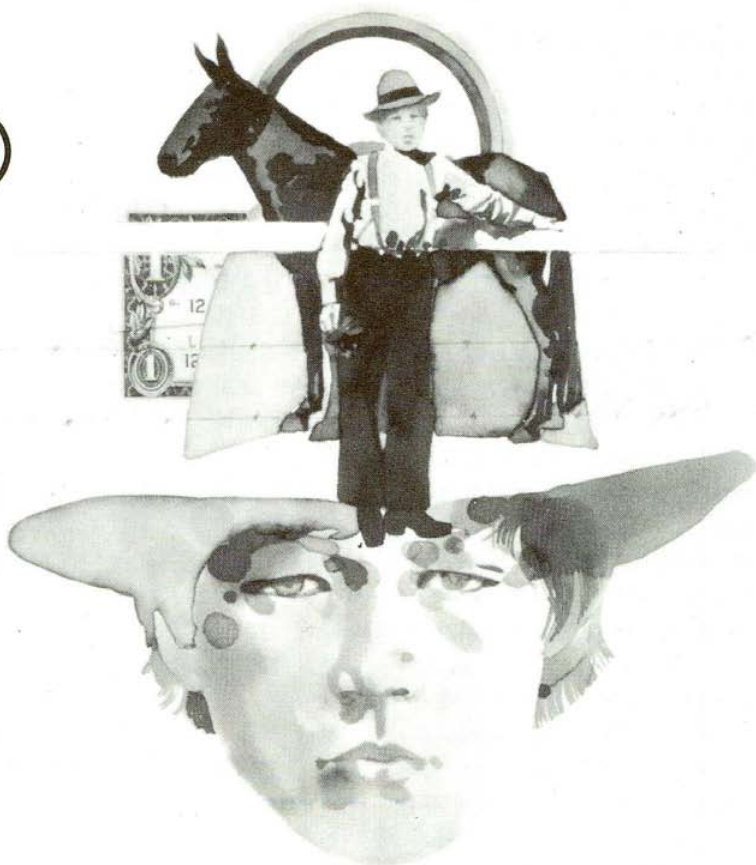
로비, 맨 그리고 벨리사의 제일 큰형이며 오빠인 조이는 정신 박약아입니다. 그는 유타주 아메리칸 포크에 있는 훈련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방문하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특수한 어린이들과 어울려 놀입니다. 그들이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는 것은 거룩한 경험입니다. 나는 정말로 조이와 그의 친구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

는 기회를 갖게 됨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빠 또는 형과 함께 있었던 일로 기쁜 마음을 지니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일로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손자 손녀의 침례 의식에 참석할 때, 우리는 교회 회원이 되는 그들의 행복을 함께 나눕니다. 에이미는 침례를 받은 후에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순진하게 썼습니다. “나는 침례를 받아서 교회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무척 즐거웠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죄도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 이틀 귀중한 어린이들이 완전한 신앙과 신뢰로써 아빠의 손을 붙들고 침례탕에 들어가는 모습은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의 손을 그들의 머리 위에 얹고 확인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주는 성신의 은사와 가장의 축복을 함께 경험하는 것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처럼 들린다면,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은 우리의 보화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위탁된 특별한 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왕같은 고귀한 세대임을 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손자 손녀들,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의 복음에 마음을 돌이키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그들이 끝까지 사랑과 신앙으로 충만한 자녀가 되어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 마이클의 가족

베티 루 멜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옷 보따리 하나와 많이 읽은 성경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과 소망도 지니고 왔습니다.

내가 막 열 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펜실베이니아주 사스케하나와 유니아타 운

하 접경 부근에 공터가 있는 조그마한 오두막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하신 아버지께서 쟁기를 끄셨습니다. 몸집은 작은 편이지만 결단력이 강한 어머니는 쇠스랑으로 흙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두 분은 노래를 부르며 일하셨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



면서 감자 눈을 기름진 검은 흙에 심으면서 마냥 즐거워 하였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강가에서 열매를 주워 통에 담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운하에서 배를 보았어요. 여러 가지 물건이 꼭 차 있는데 별별 것이 다 있어요.”

“그래. 우리는 정말 신기한 곳에 왔단다. 마이클.” 아버지가 대꾸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자와 열매를 마을에 내다 팔았으나, 한번도 충분한 돈을 가져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열두 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직장을 구하려 잠시 집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시기 전에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신 후, 내게 미소를 지으시며 나를 내 침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매트리스를 일으켜 세워 놓고 1불짜리 지폐를 이불가에 핀으로 꽂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으러 가는 거다. 나도 가고 싶지는 않지만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 아버지가 없는 동안 엄마를 잘 보살펴 드리거라.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 이 돈을 기억하거라.” 아버지는 매트리스를 툭툭 두드리시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마이클?” 하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아버지.”

어머니와 나는 담장에 서서 아버지가 올드 포스트 로드를 따라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지자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안계시는 동안에도 전처럼 감자를 심고 열매를 따야 한다. 마이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의 임무를 행하기로 결심하고 쟁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쟁기를 박아 끌어도 고랑이 깊게 파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노새가 운하의 배를 끌었으며, 감자는 싹이 텃고 나는 열매를 따고 나무를 쪼개 뿔나무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입에서는 노래가 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짐을 하나 가득 실은 운하 배가 천천히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새를 모는 사람이 노새에게 육살을 퍼부으며 채찍을 휘둘렀으나, 노새는 뒷걸음질치면서 울었습니다.

마부가 “이 게으른 노새같으니라구 하며 계속 소리를 치며 채찍질을 하자 가엾은 노새는 간신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배의 대판 가까이 갔을 때 노새는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 앉더니 지친듯이 머리를 이리 저리 흔들었습니다. 나는 밭을 가는 일을 재쳐놓고 마부가 노새의 마구를 푸는 곳으로 달려 갔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노새같으니라구! 너를 팔아서 풀이나 사야겠다. 정말이야!” 하며 마부가 고함을 쳤습니다.

나는 간청하였습니다. “아베요. 노새를 팔지 마세요. 최선을 다 했지 않습니까?”

“너는 집에 가. 길이나 막은 죽은 노새를 빛 때문에 데리고 있어!” 하며 마부가 고함쳤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는걸요! 지쳤을 뿐이에요.”

“곧 죽을거야!” 마부는 총을 꺼내 들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나는 손을 들어 가로막으면

서 부탁했습니다.

“저리 비켜, 꼬마야!”

“제가 이 노새를 사겠어요.” 나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마부는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웃었습니다.

“저...1불이 있어요.”

마부는 웃음을 멈추더니 턱을 쓸면서, “1불? 풀 공장에서 받을 액수만큼은 되는구나. 좋다. 그럼 팔았다.”고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가 돈을 헛되이 낭비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까 걱정하면서 집으로 뛰어와 침대 매트리스를 들추었습니다. 나는 운하쪽을 바라보며 노새를 생각하였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생명이라도 1불의 가치는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마부는 1불을 움켜 쥐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길을 따라 노새가 있는 곳을 가리켜 주면서 내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노새는 네 문제다! 노새를 길에서 옮기는 일은 네 책임이야!”라고 마부는 외쳤습니다.

나는 운하 배가 대판을 돌아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노새를 달래 주었습니다. “자, 일어나. 이제 집에 가야지.”

노새는 큰 갈색 눈을 굴리면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새가 일어서서 걸으려다가는 그만 풀밭 위로 주저앉았을 때 나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나는 당근 몇 뿌리를 마대 자루에 넣어서 급히 지친 동물에게 갔습니다. 슬픈 듯이 나를 보면서 노새는 당근을 하나밖에 먹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흐느꼈습니다. “괜찮아 쉬어라 노새야. 나는 너를 때리지 않을거야.”

나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의 등을 자루로 덮어 주고는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나는 노새가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모르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집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노새가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울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돌아섰습니다. “자, 자,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내가 타일렸습니다.

늙은 노새는 귀를 세우고 한 발자국 내딛더니 멈춰 섰습니다. 나는 노새의 목을 쓰다듬으면서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쉬어.”

나는 서둘러서 발을 갈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마구의 줄을 팔에 끼우고 어머니가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노새의 우는 소리가 나서 보니 노새가 나를 향해 발을 가로질러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새는 코로 나를 슬며시 밀더니 나 대신 쟁기 앞에 가 섰습니다.

“아니, 이전 처음보는 노새구나! 누구네 노새냐, 마이클?” 어머니가 놀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노새예요, 어머니. 제가 1불에 산 거예요!”

노새는 오전 내내 발을 갈았습니다. 깊고 곧게 이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줄처럼 지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노새와 함께 발을 갈고 있는 동안 빵을 구우시면서 오두막집의 창문을 통하여 내다보시며 미소지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저녁 식

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자 얼굴을 잔뜩 찌푸린 마부가 서 있었습니다. “너 내 노새 가지고 있지!” 그는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내 노새 가져가려고 왔다!”

“1불에 샀잖아요!”

“그건 노새가 죽어갈 때였으니까 그렇지!” 마부가 고함을 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노새가 이제 건강해져서 발을 간다면서? 자, 여기 네 1불 있다!”

“어머니.” 나는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내 아들은 돈을 되돌려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산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마부의 얼굴이 분노로 자주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1불을 집어 던지며 외쳤습니다. “나는 내 노새를 가져가겠소!”

나는 헛간으로 달려가 빗장을 잠겼습니다. 그러나 마부는 나를 밀어 젓히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노새의 고삐를 움켜 잡고는 채찍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새는 재빨리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그림자가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마부의 손에서 채찍을 빼앗았습니다.

“누가 내 가족과 내 집을 위협하는거요?” 아버지의 노한 음성이 울려퍼집니다.

마부는 나의 아버지를 보더니 노새의 고삐를 늦추면서 이렇게 웅얼거렸습니다. “이 늙은 노새는 절대로 일을 제대로 못할거요!”

마부가 운하쪽으로 가자 아버지는 어머니의 허리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물

으셨습니다. “이 노새가 쓸모없는 노새냐, 마이클?”

“아니예요. 저를 도와서 일을 해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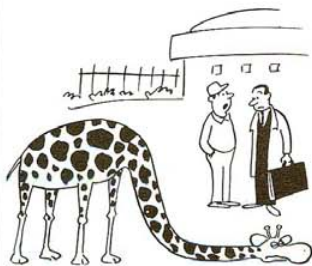
“그렇다면 너는 1불을 아주 잘 사용하였구나. 나는 일을 해서 지금 2주일분의 품삯을 받았지만 가족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거야.” 아버지는 희망에 가득 찬 웃음을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도 기쁨의 눈물을 보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새가 힘든 일은 다 맡아서 하고, 채소밭도 넓어졌으니 감자도 더 많이 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열매로 파이를 굽고, 당신은 노새가 우리 불건을 마을에 실어 갈 수 있도록 수레를 만들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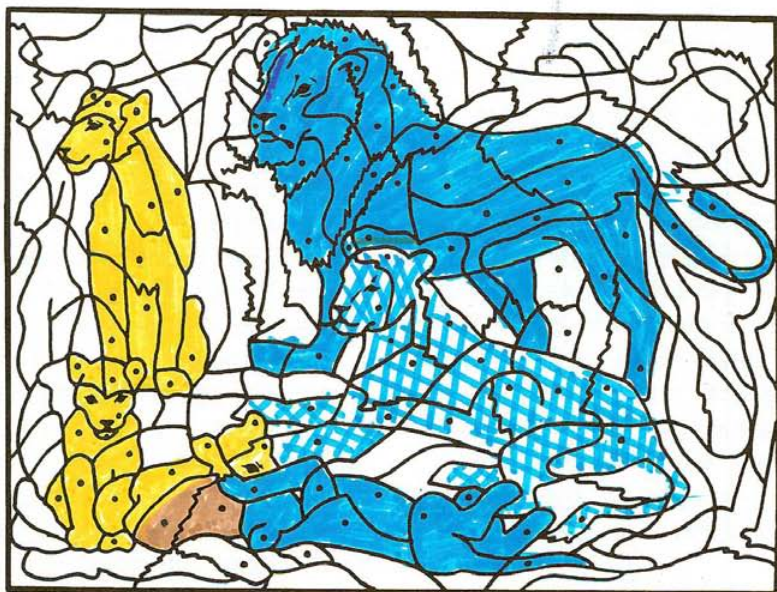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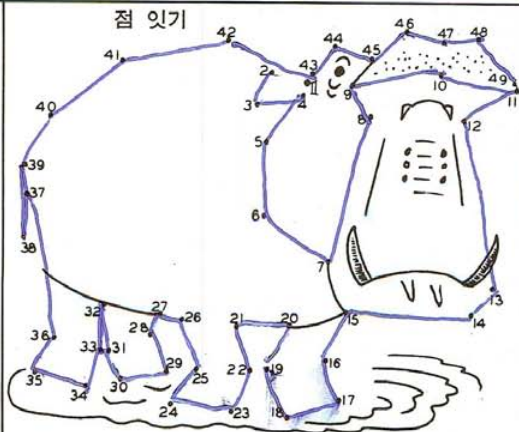
아버지는 웃으면서 “잠깐! 우선 우리 가족을 안아 보고 싶은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돈은 없었지만, 우리는 또 다시 함께 모였습니다. 나는, 부란 책상 위에 놓고 셀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을에 가지고 가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데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의 부모님의 사랑과 정직한 일, 나의 노새의 충성스러운 일과 같은 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할 때 값없이 주어지는 값진 은사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부를 헤아릴 수만 있다면 온 세상 사람들은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고 내가 어른으로 장성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





기운이 없는 모양입니다.



점이 있는 칸을 노랑색으로 칠하세요. 노랑색 위에 연한 갈색을 칠하면 동물 가족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열 여섯 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받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갖고 형의 차를 타고 친구와 함께 캘리포니아의 헐리웃에 있는 선셀가로 영화를 보러 간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장을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는데 어떤 부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는 부인이 멈춰 서서 나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걸어가면서 친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는 “나는 쉰 다섯이 되면 회개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쉰 다섯 살은 존재

## 55세에 회개를?

마이클 브이 리





할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연령으로 생각되었으며 그때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열 여섯 살에 회개하는 것보다 더 현명하고 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2년 후에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어떤 단체가 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얻은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않았으나 그 단체의 열성과 확신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날 밤에 나는 진지한 마음을 갖지 않은 채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침대에 누워 쉬면서) 그리고는 학교에서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러한 느낌이 들기를 기다렸으나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나는 실망하고 곧 잠이 들어 버렸고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신 다섯에 회개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에 가서 몇 개의 사교 집단에 들어갔으며 심한 주벽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점점 더 알코올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악습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곧 나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자신에게 말하려는 것은 단지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를 당하여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장례식에서 나의 생활을 변화시켰던 실교를 들었습니다. 나는 늦게 도착하여 커다란 초교파 예배당의 뒤에 서서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연사가 내 친구 랜스를 위한 조사를 전하는 동안 완고한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장 의미깊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랜

스는 2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찾지 못한 것을 찾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큰 확신과 소망을 안겨 주었으며 또한 내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세상적인 지식은 내가 거룩한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될 지혜와 힘에는 비견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그런 순종이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대학의 남자 사교 클럽의 한 방에 들어가 혼자서 열렬히 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으며 참된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기로 스스로 약속함으로써 몇 시간 동안 계속된 열렬한 기도에 대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며칠 동안에 내게 임했던 유혹은 내가 아직 어린 아이 정도의 자제력밖에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나의 음주 문제로 3주간의 성공과 실패의 갈등이 있은 후 나는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나의 이율성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즉시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다시 “옛날의 자신”으로 돌아가서 옛날의 나로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3주 동안 나에게 닥친 고뇌는 내가 견디기에는 너무 벅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모범이 될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오래 전에 차를 타고 솔트레이크



이크시티를 지날 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물몬들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잘 돌본단 말이야.” 나는 물몬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생각해 냈습니다. 몇 명의 대학생 사교 클럽 회원들에게 물몬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했더니 저들은 물몬을 적대시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클럽 회원 중의 한 명이 물몬이며 한때는 비활동적이었으나 나중에 교회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4일이 지난 후에 아무런 과오도 저지르지 않고 하룻밤을 지낼 결심을 하고 대학생 사교 클럽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알코올이 섞이지 않은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으며 물몬 회원인 제프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방을 가로질러 그에게로 다가가서 우리 두 사람을 모두 놀라게 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제프, 너의 교회가 어디에 있지?”라고 물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제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는 마침내 “왜 묻지?”라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잘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프가 나의 진의를 파악하고는 그 다음날 나의 질문에 관하여 토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다음날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나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프는 그 질문에 대하여 전부 다 대답할 수는 없었으나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두 명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두 친구가 금

요일 밤에 비회원인 자기 여자 친구에게 이야기하러 집에 오기로 했으며 나도 그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초청에 대하여서는 고맙게 여겼으나 솔직히 말해서 종교를 위하여 금요일 밤의 파티를 포기하는 것은 지나친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흰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맨 선교사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파티에 참석해야 하는건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두 젊은 선교사가 나에게 어떤 것이라도 가르쳐 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러한 첫인상을 다시 평가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나는 그 장로들의 간증이 매우 강한 것을 알았으며 참으로 그들이 무언가 나에게 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토론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심을 갖고 있었으며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 때문에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것에 모두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세번째 토론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찍 도착했으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멈춰 서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이 토론 시간에 이 교회가 참된지 아닌지 가르쳐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제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나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성신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권세를 갖고 내 몸의 모든 부분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참되며 내가 침례받고 선교사가 되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음성을 듣거나 번쩍이는 빛을 본 적이

없지만 내가 느낀 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쁜 일을 할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그 방을 떠났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지혜의 말씀을 깨뜨리는 것은 나의 본성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몇 가지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침례받기 전에 다른 구도자에게 나의 간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1972년 11월 26일에 침례를 받았으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하여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음 여름까지 600불을 저축했습니다. 그때 스테이크 부장님이 나를 불러서 접견하셨습니다. 그는 내가 언제 선교사로 출발할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12월에 떠나는 것이 목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왜 12월이지요?”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12월까지의 선교 사업에 필요한 금액의 절반(약 1,800불)을 저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받은 장로 정원회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스테이크 부장은 내가 10월달에 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10월에 떠나면 장로 정원회에 큰 짐을 지우게 되며 나는 무엇보다도 우선 그들이 받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꽤 오랫동안 토론했으나 결국에는 나의 주장대로 12월에 출발할 계획을 세우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나는 스테이크 부장에게 ‘아니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으나 어떻게 하면 10월에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넌 뭘 타고 다니지?” 자동차. “그 차는 누구 것이지?” 내 것이지. “그럼 그걸 팔지 그래.” 좋다. “집에는 어떤 것이 있지?” 스테레오 전축, 파도 타기 기구, 스키 기구 등등……. 제안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나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마음속으로는 그러한 물건들을 모두 정리할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서 연필과 종이를 꺼내서 내가 가진 물건을 모두 팔면 얼마만한 돈을 장만할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면 나는 필요한 1,800불을 갖게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스테이크 부장에게 전화해서 10월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좀더 절약하게 되자 여러 가지 영감과 인도를 받았으며 상당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기회가 열렸습니다. 10월이 되었을 때 나는 3,600불이나 갖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예정대로 출발할 수 있었고 그것도 선교 비용 전액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전에는 나의 약점이었던 것이 이제는 장점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서약을 맺는 것을 미루는 자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내가 친구인 랜스와 선교사와 성신으로부터 배운 것을 말해 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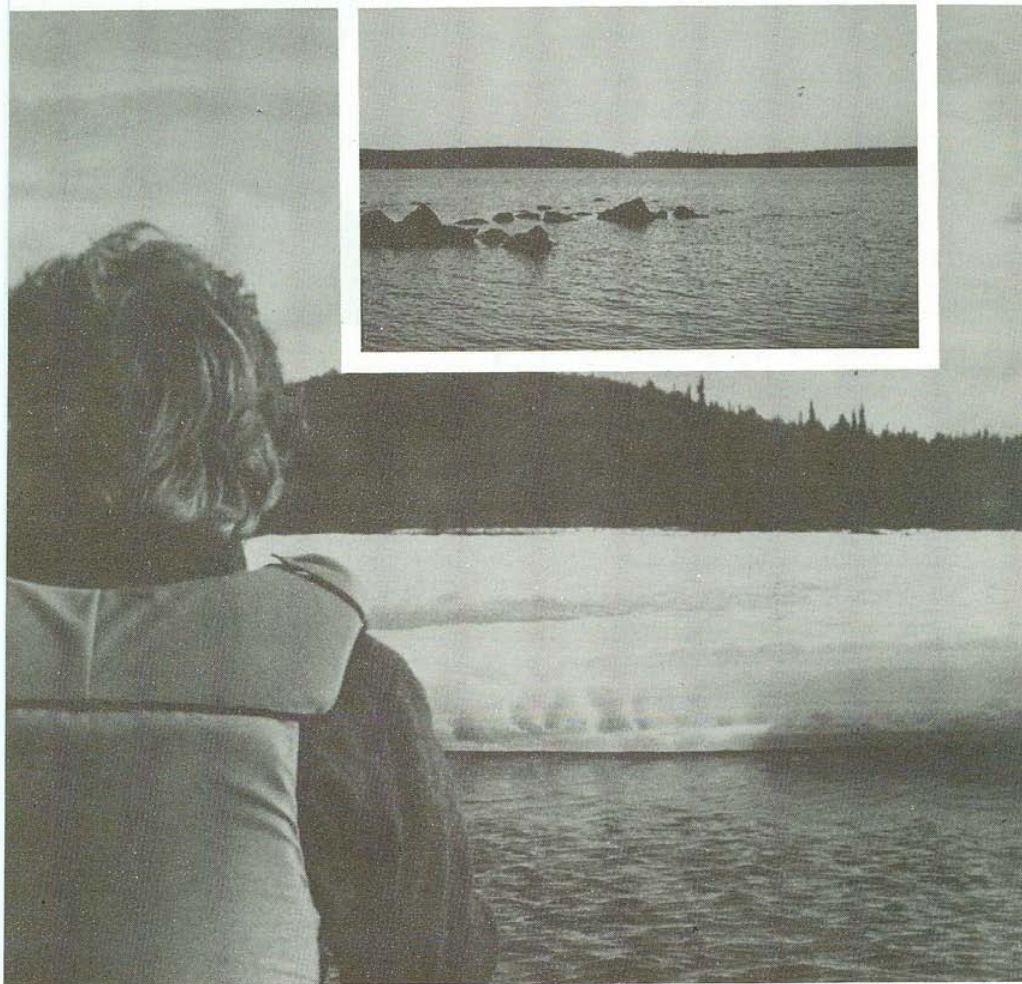
왜 정돈된 생활과 깨끗한 양심과 구세주에 대한 간증에서 오는 기쁨을 뒤로 미루겠습니까?

✱



# 우리 둘만은 아니었다

보브 태너와 그의 부친은 북서쪽으로 1,126킬로미터의 황량한 벌판을 여행하면서 급류와 회색 곰과 늑대와 얼음 덩어리와 사나운 날씨를 만났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가까와졌으며 그들은 정말로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악셀 태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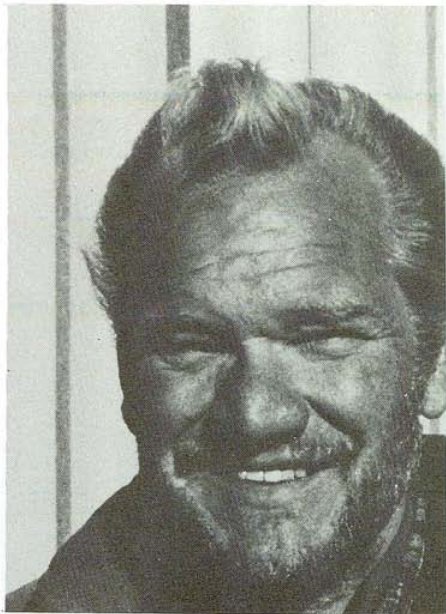


우리는 급류를 건너기로 결심했다. 물살이 너무 세었기 때문에 강물이 흐르는 대로 내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파도와 물보라가 잠잠해졌다. 모든 것이 순간 정지하는 것 같았다. 바람이 조용해졌고 물결도 잔잔해졌으며 우리의 맥박의 속도도 좀 늦추어졌으며 우리의 호흡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다음 순간에 우리가 본 것은 급류보다 훨씬 더 우리를 무섭게 했는데 그것은 두 강둑 사이를 연결하는 수평선으로서 명백히 폭포였다.

우리의 지도에는 폭포가 나타나 있지 않았으나 그것을 염려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았다. 캐나다 북쪽의 이 거대한 미답사 지역에서는 놀라운 일이 흔히 일어나곤 했다.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건너가는 길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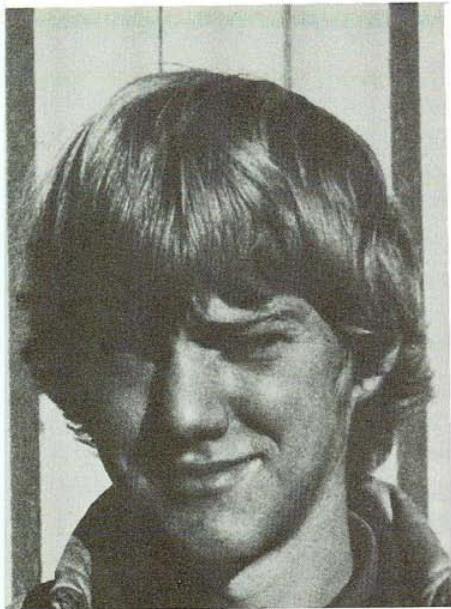
다행히 그 폭포는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거대한 파도와 그 파도가 바닥에 부딪혀서 다시 솟구치는 힘은 우리가 탄 카누우가 건너기에는 너무 큰 것이었다. 우리는 십씨 3.3도의 얼음물에 던져졌다. 우리는 10분 이내에 육지에 오르지 못하면 일어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힘과 인내력과 결단력에 대한 엄청난 시험이었으나 마침내 우리는 기력이 쇠하기 전에 바위 위로 올라가서 배를 끌어올렸다.

아들과 나는 유타주 세일럼의 우리 집을 떠나 이와 같은 위험 중에서도 북서쪽으로 1,126킬로미터의 거리를 여행하는 모험을 하게 되었다. 주님의 영감과 지시가 없었으면 결코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보브는 17세가 되자 대부분의 십대가 그러하듯이 직업을 갖고 싶어했



다. 그가 버는 돈의 대부분은 선교사 비용으로 저축했다. 그는 자기 일생의 대부분을 선교사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살았으며 플로리다의 텔라하시 선교부에서 봉사한 자기 형 데이빗의 모범을 따르려고 했다.

그러나 그 직업은 그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다. 보브는 처음에 자기가 그것을 이겨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며 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나 조금씩 악에 물들기 시작했다. 아내와 나는 그가 직업을 바꾸도록 충고했고 그는 직업을 바꿨다. 그러나 두번째 직업은 첫번째 것보다 더 나쁜 것이었다. 그에게는 십자



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개인 기도를 게을리 했을 뿐 아니라 선교 사업을 행하려는 열의도 점점 식어 갔으며 그가 선교사 기금으로 모았던 수천 불의 돈도 유흥비로 써버렸다.

아내와 나는 몹시 상심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으며 자주 신전을 방문했다. 어느 날 우리가 프로보 신전에 앉아 있을 때 드디어 응답이 주어졌다. 아내는 만일 내가 보브와 함께 코퍼마인 강으로 가면 그가 다시 복음을 사랑하게 되리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속삭이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아내가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들과 나는 몇 년 전에 야의 잡지에서 코퍼마인 강에 대하여 읽은 적이 있었다. 1974년에 6명의 미국인 탐험가들은 어떻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강을 따라 여행했는가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이 강은 북극해의 코리베이션만에 도달할 때까지 482킬로미터나 되는 황량한 툰트라 지대를 통과하고 있었다. 지도에는 38개의 급류가 나타나 있으며 어떤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급류의 정도를 나타내는 0에서 6까지의 수치 중 5에 해당되는 거치른 것도 상당한 수에 달한다고 되어 있다. 어떤 급류에는 파도의 높이가 2.7미터나 되는 것도 있다고 한다. 캐나다인으로 구성된 대원들이 1973년에 똑같은 코스로 가려고 했으나 사나운 일기 때문에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기사가 난 이후로 데이비드와 보브와 나는 코퍼마인 강을 정복했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꿈이었을 따름이었다. 우리의 재정 형편으로는 강 상류까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단지 그 강에도 착하기 위해서 더 작은 호수와 험한 지역을 통과하며 카누우로 644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장비를 운반해야 했다. 우리 모두가 황야에 대한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렵고 힘든 여행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내가 영감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도 똑같은 것을 말씀해 주실 것으로 믿었으며 신전을 떠나기 전에 똑같은 확신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런 여행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예측하기란 어려웠다.

우리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지도를 얻



었다. 데이비드는 자기의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나지 않기로 했으므로 보브와 내가 열심히 그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신체를 단련하기 위하여 운동과 달리기를 시작했다. 우리는 사방 6미터나 되는 지도를 펼쳐 놓고 우리가 갈 코스를 계획했다. 우리는 이전에 험한 광야와 강을 여행한 경험을 살려 식품과 장비와 그외의 필요한 것을 준비했다. 우리는 4개월 동안 계획하고 조사하여 짐과 가방을 꾸렸으며 그 속에는 각종 장비와 세심하게 준비된 건조 식품으로 꽉 채웠다. 우리는 16킬로미터의 육상 목표와 매일의 거리를 계획표에 적어 넣었다. 우리는 캐나다에 도착하면 우리가 예정한 코스와 여행 종료 예정일을 열거하면서 로열 캐나다 기마 경찰대의 도움을 받아 양식을 작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1978년 6월 23일에 유타주의 세일럼을 떠나 5일 뒤에 캐나다의 크레이트슬레이브호의 엘로나이프에 도착하여 몇 명의 다정한 교회 회원에게 차를 맡겨 두고 출발하였다. 그들이 우리를 자기 집에서 26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차를 태워 주고 여행을 시작하도록 도와 주었을 때 우리의 여행이 진지하게 시작되었다.

우리는 코퍼마인 강에 도착할 때까지 91번이나 모든 용구와 카누우를 운반했다. 때로는 장비를 몇 백 미터씩 운반해야 할 때도 있었다. 가장 멀리 운반할 때는 4킬로미터나 운반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모두 운반하기 위하여 장비를 두세 번씩 운반해야 한 적도 있었다. 우리가 여행하면서 짐을 운반하기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나무 그루터기와 재가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는 불에 탄 지역

을 통과할 때였다. 3.2킬로미터를 가는데 21시간이나 걸렸다.

처음 2주일 반 동안은 키가 작은 소나무 숲을 통과했다. 그리고는 툰드라 지방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넓고 평평하고 수많은 호수가 있었다. 곧 우리는 호수를 횡단하는 데 익숙해졌으며, 그 다음으로는 카누우와 장비를 저쪽 물가에 운반해 놓고 다시 시작하는데 익숙해졌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기와 기막힌 낚시질을 빼고는 별로 특별한 사건이 없었던 것 같았다.

많은 모기가 우리의 체중을 줄이는 데 한몫을 했다. 첫 일주일이나 지나자 우리는 너무나 모기에 물려 마치 음에 걸린 사람처럼 보였다. 살아 남기 위해서는 얼굴에 쓰는 그물과 모기 쫓는 약품이 꼭 있어야 했다.

그 반면에 낚시질은 어떤 낚시꾼이라도 만족할 수 있을 정도였다. 낚시를 던질 때마다 고기가 물렸다. 우리가 잡은 고기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의 무게가 한 근 반이나 되었으며 가장 큰 것은 106센티미터나 되는 것이었다. 평균 무게는 약 5.4킬로그램이었다. 북극 살기와 창꼬치를 모닥불에 튀긴 것은 매우 맛있었다.

우리는 힘든 여행 중에 몇 가지 사실을 배웠는데 그중 하나는 가죽 구두는 툰드라 지방에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툰드라 지방을 걷노라면 어느 곳에서나 45센티미터에서 60센티미터 이상씩 가라앉으며 영구 동결대에 닿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얼음 물 속에서 힘들게 걸게 되며 항상 발이 시렸다. 또한 북극으로 가까이 갈수록 지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이는 자침이 계속해서 자리를 바꾸고 자침이



가리키는 북쪽과 진짜 북쪽은 점점 더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유타주에서는 그 차이가 16도이다. 우리가 북극 지방에 있을 때는 42도의 차이가 났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큰 교훈은 일정 표를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3주 반이 지났을 무렵에 우리는 예정보다 6일이나 늦어 있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6일 동안 식량이 없는 가운데 지내야 하며 우리가 현지에서 찾을 수 있는 식품으로 살아야 하며 그렇게 되면 더 늦어지게 된다. 툰드라 지방에서는 나뭇 가지가 유

일한 연료이며 고기를 익히는 데 필요한 만큼 모으려면 몇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날씨에 대하여서도 염려하였다. 북서쪽의 여름은 때때로 유타주의 겨울과 같았으며 날씨는 예측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눈과 바람과 폭풍우와 얼어붙은 기온에 접하게 되고 8월 중순이 되면 겨울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8월 7일에 여행을 끝내도록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단 며칠이라도 지연되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여행하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빛이 비치고 있었으므로 어



두움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심신이 몹시 지쳐 있었다. 6주일 동안에 해가 하루 종일 비친 것은 단 5일밖에 없었고 해를 본 날은 9일밖에 안되었다. 그 여행 중에 가장 따뜻했던 때는 섭씨 12.8도에서 15.6도 사이였다. 나머지 시간은 사나운 폭풍우가 칠 때를 제외하고는 음울한 회색의 보슬비가 우리를 따라다녔다. 보브가 나를 보면서 “아버지, 외로우세요?”라고 묻는 때도 있었다. 그러면 나는 “정말 그렇단다.”라고 대답하곤 했다. 우리는 가족(나에게는 딸도 9명이나 있었다.)이 몹시 그리웠으나 그들의 기도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하루의 여행을 아침 8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마치곤 했다. 우리는 달리 별도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뻘뻘해진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가야 했다. 우리는 포인트호에 도달할 날을 기다렸다. 이 호수는 여러 개의 긴 호수의 첫번째 것으로서 여기에 도달하면 우리의 장비를 운반하는 것은 끝나게 된다. 우리는 480킬로미터를 여행했으며 강에 도달하기 위하여 호수를 따라 160킬로미터를 여행해야 했다.

우리는 북극 지방을 가로질러 전진하면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의 권세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꼈다.  
우리는 여행하면서 정구적으로 기도하였다. 나는 한 가지 규범을 정하고 보브도 따라 주기를 바랐으며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다. 첫주에는 그의 기도가 더듬거리고 짧았으나 우리가 광야로 전진하는 동안에 어떤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가끔 간절히 말하곤 했

으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그가 되돌아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좀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자 그는 인생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다. 우리는 어떤 때는 하루에 열두 번 이상이나 기도하곤 했다. 우리는 사실상 단 두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과 아들과 주님, 셋이 함께 한다는 느낌이 점점 강렬해졌다.

어느 날 오후 늦게 우리는 스타베이션호의 끝에 있는 강 하구에 가까이 가고 있었다. 물가로 가다가 카누우가 바위와 충돌했다. 우리는 큰 언덕같은 털뭉치가 가까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것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동물이 죽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보브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건 회색 곰이야. 저건 죽은 것이 아니고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때 거기에서 3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순간 곰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나는 대부분의 곰이 그렇듯이 도망갈 줄 알았다. 그러나 그놈은 성이나 있었다. 목에 털이 곤두섰고 머리를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으며 잇빨이 철컹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귀를 뒤로 눕히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쥐고 보브는 총을 잡았으나 곧 가까이 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조금 뒤로 물러섰다. 어쨌든 우리는 그 회색 곰으로부터 도망쳐야 했다.

우리는 약 60미터 가량 떨어진 골짜기로 조금 후퇴해서 그 곰의 동정을 살폈다. 그 곰은 등을 뒤로 하고 누워 있었으며 우리는 식량 보따리를 집어들고 다시 카누우쪽으로 돌아왔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자리를 보니 곰이 없어졌다. 절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반대



방향으로는 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호수 때문에 오른쪽으로도 가지 못했을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이 우리와 평행으로 오르막 길로 갔거나 바로 우리쪽으로 오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 꿈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언젠가는 꿈이 우리의 발자국을 따라 덤벼들 것을 생각하니 겁이 났다. 보브가 “아버지, 우리 기도할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기도한 뒤에 내가 카누우를 메고 보브는 총을 들고 조심스럽게 끝까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짐이 있는 곳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산마루에 도착했으며 그 꿈은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일 그 꿈이 짐꾸러미에 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장비를 모두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죽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결사적인 노력으로써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카누우를 높이 들고 목청껏 고함을 질렀다.

그 꿈은 큰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앞으로 달려오다가, 작으마한 몸통과 두 다리에 5m나 되는 알루미늄 머리를 가진 괴물이 으르렁거리는 것을 보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다. 우리는 꿈을 만난 후에 갖게 된 명한 느낌을 없애는 데 약 4시간이나 걸렸으나 우리는 두 사람 다 그 기도가 우리를 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포이트호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온통 얼음 덩어리로 덮여 있었다. 심한 풍랑에 떠돌아다니는 얼음 덩어리는 이 작은 카누우를 제란 겁질처럼 부서버릴 것이다. 우리는 캠프를 만들었으며 그날 밤 나는 보브에게 기도하도록

부탁했다. 그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신앙을 보였다. 그는 단지 “하나님 아버지, 바람을 멈춰 주십시오.”라고만 말했다.

그 다음날 우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전혀 파도가 일지 않았고 호수는 거울처럼 잔잔했다. 그러나 우리는 32킬로미터나 횡단해야 했다. 우리가 호수에 떠 있을 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얼음 덩어리 사이로 32킬로미터를 전진했다. 우리가 얼음에 둘러싸여 있는 동안에 카누우가 두 번 얼어 붙었으며 그때마다 우리는 일어나서 통로를 만들기 위하여 얼음을 깨뜨려야만 했다. 마침내 7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툭 트인 물에 들어섰다. 우리가 얼음 덩어리 사이를 막 통과했을 때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바로 그 7시간 반을 제외하고는 매일 바람이 불었다. 우리는 다시 기도했는데 이때는 감사의 기도였다.

보브가 다시 자신의 선교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보브가 “어쨌든 나는 집에 도착하면 선교 사업을 준비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보브는 그때부터 선교 사업에 대하여 더 많이 이야기했다. 어느 날 밤 새벽 1시쯤 되어서 길고 힘든 하루가 끝났을 때 보브는 침낭에서 기어나와서 “아버지, 영생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약 두 시간 가량 이야기했다. 보브는 마지막으로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것이예요.”라고 말하고는 잠이 들었다. 나에게는 그 말 한 마디가 이 여행 모두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이외에도 자연의 조화와 아름다움과 자연의 힘의 권세와 창조물을 인식하게 해준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

어느 날, 코퍼마인 강에 도달한 우리는 눈 보라 속에서 노를 젓고 있었다. 그때는 7월 말인데도 눈이 내리고 있었다. 물살도 세었고 맞바람이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보브는 “아버지, 강 기슭을 보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했다. 우리는 가만히 서 있었다. 우리가 노젓기를 멈추면 바람 때문에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멈추어 강변으로 올라가서 언 몸을 녹일 나무를 모았다.

어떤 때는 심한 급류로 말미암아 바위 위에 얹혀서 영원히 거기에 멈춰 있게 될 것 같았다. 그러나 기도하고 재빨리 배를 움직여서 자유롭게 되었다.

일단 강에 도착한 우리는 그 동안 빼앗긴 시간을 보충하기로 결심했다. 날씨가 너무 추웠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만 했다. 우리는 밤에도 춥게 잤다. 바닥은 얼음이고 바람도 찬다. 우리는 약간의 연료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음식을 덥히기에 충분할 정도였다. 따라서 우리는 노를 저으며 전진했다. 강 위에서 가장 나쁜 날은 겨우 5킬로미터를 나아갔고 가장 좋은 날에는 80킬로미터를 갔으며 여러 개의 폭포를 넘고 그날에 건넌 8개의 급류 중에서 마지막 급류에서 카누우가 침몰한 것이다. 지도에는 8개의 급류가 나와 있었으며 우리는 서둘렀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먼저 조사해 보지도 않고 그 위로 달렸던 것이다.

우리는 다시 마지막 여행을 시작해서

그 여행이 끝날 때는 그 강 하구에 있는 작은 에스키모 부락에 도착했다. 그때 우리에게 반 끼분의 식량밖에 없었다. 카누우는 몹시 파손되었기 때문에 캐나다 관리에게 통지한 뒤에 내버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 강의 모든 급류를 배를 타고 통과했으나 꼭한 군데(피곤했기 때문인지 우리가 장비를 운반하기가 두려워서인지 확실하지 않음)를 빠뜨렸기 때문에 기록을 세웠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브를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것이다. 그는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 감독을 찾아가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지금 일리노이 시카고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나는 자기 아들이 선교사로 나갈 결심을 하도록 도우려고 애쓰는 모든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모든 사람이 코퍼마인 강으로 여행할 필요는 없으나, 이런 종류의 훈련을 쌓는 경험은 가정에서 할 수 있다. 차고에서 같이 일하면서, 정구를 치면서 또는 단 두 사람만이 산보하는 가운데에서 생길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받지 않았으면 코퍼마인 강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젊은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서 광야, 갯세마네, 거룩한 숲 등과 같이 온전히 주님께 의존하고 열렬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부르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태에 뒹군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끌려고 하지 말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성령의 권고를 따를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일생을 통하여  
가장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은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 “이들은 정복당하지 않을 사람들이다”

본 제이 페더스토운 장로

철십인 제일 정원회

다음 이야기는 스페인 국왕이 1608년  
에 협정을 맺기 위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사절로 파견한 스피놀라와 리  
차르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8명 내지 10명 가량의 사람들이  
작은 배에서 내려 풀밭에 앉아서 빵과  
치즈로 된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을 보

았습니다.

외교관들은 한 농부에게 “저 여행자  
들은 누구입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존경하는 주인들입니  
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들  
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스피놀라는 즉시 “이들은 정복당하지

않을 사람들이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스 저 “행복한 가정과 그러한 가정을 만드는 자들”)

얼마 전에 나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과 함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는 특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는 교회 대관장이 아니었습니다. 킴블 대관장은 토요일 밤 늦게까지 연속적으로 모임을 가졌지만 피곤한 빛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오전 8시에 감독단, 고등 평의회 연석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을 마치고 일반 총회를 가졌고 이어서 칠십인 정원회 모임과 축복사와의 접견, 예배당 헌납식을 가졌으며 저녁에는 신학원 중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가 그날 밤 11시에 떠나게 되어 있었으므로 9시경에 스테이크 부장택에 갔습니다. 친절한 스테이크 부장의 부인은 우리를 위해 저녁을 마련했습니다. 킴블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에게는 우유 한 컵과 집에서 만든 빵만 조금 있으면 됩니다.” 이들은 정복당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평 요리나 칠갑 상어 알 등과 같이 왕에게 알맞은 진수 성찬을 먹습니다. 그들은 취할 때까지 샴페인이나 기타 각종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나 가장 높은 산에 오르는 등산가나 가장 위험한 인생의 거센 물결을 헤쳐 나가는 사람들은 대개 여위고 단단한 신체를 조절하는 사람들로서, 자제력과 의지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복당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배불리 먹고 다음

날 아침 오전 10시까지 잠을 자서 기력을 잃게 되는 지도급 정치가와 사업가들에 관해서 읽습니다. 수확의 법칙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현대의 예언자는 “깊은 쾌락에 빠지는 자들은 진주보다는 모래만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하들이 적을 무찌르도록 준비시키고 있던 앤티고너스라는 장군에 관하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전략과 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앤티고너스 장군의 군사들은 숫적으로 너무나 열세였습니다. 공격 신호가 났으나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들은 명예롭지 못하게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앤티고너스 장군은 무엇이 문제인지 물었습니다. 대장들은 그들이 숫적으로 너무 열세이기 때문에 감히 공격하려 하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앤티고너스 장군은 잠시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많은 숫자로 생각하는가?” 병정들 사이에 이 정신이 퍼지게 되어 그들은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종개개인을 얼마나 많은 숫자로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을 얼마나 많은 숫자로 생각하십니까? 나단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에즈라 테프트 벤슨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정복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에 공헌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재산이나 부를 열거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격이나 정직성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바바라 스미스와 벨레 스페 포드 자매를 얼마나 많은 숫자로 생각





